

養浩然之氣 研究

琴 垞 樹*

《目 次》

- | | |
|---------------|-----------|
| I. 緒 論 | 1. 曾子の 守約 |
| II. 養 勇 氣 | 2. 集義所生者 |
| 1. 三達德과 勇의 意義 | 3. 知言 |
| 2. 不動心の 方法 | IV. 結 論 |
| III. 浩然之氣와 知言 | |

I. 緒 論

人間의 完成, 家族・國家・天下・自然의 完成을 目標로 하고 있는 文化傳統에 있어서는 그 目標達成의 根本이 修身이다.

修身은 道を 實行하는 것이 重要な 要素가 되어 있다. 普遍的 基本的인 道는 五達道라 하며 五達道의 實行은 智・仁・勇이라고 하는 三達德에 바탕하고 있다.

Aristoteles(B.C.384~322)와 더불어 古代希臘 思想의 雙壁을 이룬 Platon(B.C.427~347)의 三元德{智慧의 德(Weisheit), 節制의 德(Besonnenheit), 勇氣의 德(Tapferkeit)}中에 勇氣의 德이 屬해 있고, 이 三元德이 各各 調和와 均衡을 이루면 正義의 德(Gerechtigkeit)이 出現한다¹⁾는 것이다.

孔子께서는 일찍이 「仁者は 必有勇이라」하여 勇氣의 德이 修身에 있어서의 役割과 位置를 알게 하셨고, 「智者는 不惑하고 仁者는 不憂하고 勇者는 不懼니라」고 하여 勇氣의 德을 기르는 것이 緊要함을 말씀하셨다. 이는 人間完成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勇氣를 기르는 것이 不安・恐怖症에 시달리는 現代人의 健康을 위한 豫防醫學의 側面에서도 緊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明心寶鑑》²⁾에서는 「氣弱病相因」이라 하고, 《禮記》³⁾에는 「莊敬하면

* 圓光大學校 漢醫科大學 專任講師.

1) 琴鍾文, 《政治學研究》(螢雪出版社, 1983), p.12.

Politeia:Platon, Der Staat, ff.125~128. Alfred Kröner Verlag, Stuttgart. 1955.

2) 孫眞人養生銘에 云怒氣偏傷氣오 思多太損神이라 神疲心易役이오 氣弱病相因이라 勿使悲嘆極하고 當令飲食均하며 再三防夜醉하고 第一戒晨嘔하라(《明心寶鑑・正己篇》)

3) 子 曰君子莊敬하면 日強하고 安肆면 日偷하나니 君子는 不以一日을 使氣躬으로 僂하며 如不終日이니라 《禮記・學記篇》는 것이다.

日強한다」고 하고 있다.

漢醫學은 悠久한 韓·中文化 속에서 成立 發展한 偉大한 文化要素이다. 따라서 그 思想과 學問을 體로 한 用으로써 생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觀點과 視角에서 養勇·養浩然之氣에 관한 研究는 重要한 意義가 있다고 思慮되어 이 論文의 主題로 삼아 研究하고자 한다.

Ⅱ. 養 勇氣

1. 三達德과 勇의 意義

《中庸》에 이르기를 天下에 五達道⁴⁾가 있고 그것을 實踐케 하는 三達德⁵⁾이 있다고 하였다.

즉 「天下에 達道가 다섯이고 그것을 行하게 하는 것이 셋이니 君臣·父子·夫婦·昆弟·朋友의 사귀 이 다섯가지는 天下의 達道요, 智·仁·勇」 세가지는 天下의 達德이니 行하게 하는 것은 하나이다」고 한다.

天下之達道 五에 所以行之者는 三이니 曰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는 天下之達道也요 知人勇三者는 天下之達德也니 所以行之者는 一也니라 《中庸》⁶⁾

아는바와 같이 儒敎의 理想的 目標과 그것을 實現하는 方法은 三綱領八條目에 잘 闡明되어 있다. 八條目은 三綱領을 實現하는 方法으로 提示된 것이다.

요컨대 人間과 家族·國家·天下 그리고 自然의 完成은 修身을 根本으로 하고 있다. 修身에는 道의 實踐이 그 要素가 된다. 道의 가장 普遍的이고 基本的인 形成이 다섯이 있다. 이 다섯가지 道 즉 五倫⁷⁾을 實踐하기 위하여서는 道德的 能力이라고 할 수 있는 三達德⁸⁾이

4) 어떠한 時代에 어떠한 場所에서도 人間이라면 누구나 通行하고 또 通行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의 길이 達道이다.

5) 達德의 德은 得의 뜻으로 古今을 통하여 누구나 體得하고 있는 바의 理致를 達德이라 한다. 理·性이 內在함으로써 또는 그것이 끊임없이 實踐됨으로써 心身에 터득되어 있는 힘을 德이라고 말한다. 理致 그 自體가 德이 아니라 理에 기초한 心身의 能力이 德이다. 이 德은 반드시 後天的, 修得的인 것으로 限定되는 것이 아니다.

6) 《中庸章句大全》(庚辰新刊 內閣藏版) 同 《中庸諺解》參照.

7) 《書經》<舜典>「曰若稽古帝舜」條에 「慎徽五典」에 五典이 克從하며……라고 있다. 곧 五典을 삼가 아름답게 하라고 하신데 五典이 能히 順하게 하며…… 하고 있는데 五典은 五常 즉 五倫이다. 蔡沈은 「五典은 五常也라」하고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 이것이라고 하였다. 《書傳大全》 庚辰新刊 內閣藏版.

8) 三達德을 實行하게 하는 것은 正성(誠)이다. 다섯가지 達道를 認識하는 것이 「知」이며, 五達道를 體得하여 實行하는 것이 「仁」이며, 五達道의 認識 實行을 힘쓰게 하는 것이 「勇」이다. 達德은 누구나 터득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體得할 수 있는 것이며, 本質의으로는 벌써 體得하고 있는 것이지만 正성(誠)이 없었다면 人慾이 介在하여 德이 진정한 의미의 德이 아니다. 그리고 誠과 三達德의 關係는 程子에 의하면 「誠이란 要컨대 三者를 誠實하게 하는 것이다. 三者 이외에 별도로 誠이라고 하는 特別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한다.

必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앞서 《中庸》首章에 「喜怒哀樂之未發을 謂之中이요 發而皆中節을 謂之和니 中也者는 天下地大本也요 和也者는 天下之達道也니라」고 하여 「和」⁹⁾를 「天下之達道」라고 하고 있다.

또 舜임금이 契에게 말씀하시기를 「契아 백성들이 서로 和親하지 않으며 五品이 順치 아니하거늘 그대를 司徒로 삼으니 五教를 공경하여 忒되 너그럽게 하라」고 하셨다. 五品은 五倫의 等級이고, 五教는 五倫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있다.

《孟子》〈勝文公上〉에 「사람이 道 있음에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되 가르침이 없으면 곧 禽獸에 가까울새 聖人이 근심하여 契에게 司徒 벼슬을 맡기고 백성들에게 人倫을 가르치게 하시니 父子有親이며 君臣有義며 夫婦有別이며 長幼有序며 朋友有信이니라」고 하였다.

또 《中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或生而知之하며 或學而知之하며 或困而知之하노니 及其知之하야는 一也니라 或安而行之하며 或利而行之하며 或勉強而行之하나니 及其成功하야는 一也니라 《中庸》

出生하면서 부터 五達道를 認識하고 있는 者, 곧 出生할 때 完全한 道德의 人間도 存在할 것이나(聖人), 그러나 出生할 때에는 五達道를 認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學問을 함으로써 그것을 認識하는 人間도 存在할 것이며, 困而知之하는 人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궁극의 到達者에 관하여 말한다면 三者가 同一한 認識이다. 知에 대하여 行의 경우도 역시 같다. 五達道를 平安히 實踐하는 사람도 있고, 利롭다고 생각하여 實踐하는 사람도 있으며 힘들어 實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세가지 實踐 사이에 단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단순히 過程에 지나지 않으며 實踐作業을 完成한 地點에 관하여 말한다면 三者가 모두 五達道를 實踐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도 없다.

知와 行의 三段階 곧 生知・學知・困知 및 安行・利行・勉行을 智・仁・勇에 짝지워 말하면 첫째 知行의 知는 知이며, 行은 仁이다. 知와 行이 窮極段階에 있어서 同一한 狀態에 까지 나아가게 한 것이 勇이다. 둘째 觀點을 바꾸어서 段階的 等級에서 區分하면 生知 安行은 知, 學知 利行은 仁, 困知 勉行은 勇에 속한다.

또 다음과 같이 이어져 있다.

子 曰好學은 近乎知하고 力行은 近乎仁하고 知恥는 近乎勇이니라 《中庸》

이 節은 가령 三達道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德일지라도 德을 쌓으려는 努力을 하지 않

9) 五倫을 總括한 것이 「和」이며 達道이다.

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窮極의인 智·仁·勇이 아닌 限 하고자 하지 않는 最大限主義는 옳지 아니하다. 窮極至上의 것이 아니라도 智·仁·勇에 가까운 것부터 들어가서 五達道를 實行하여야 한다. 前節의 生知·學知·困知의 三知가 智仁勇의 範疇로 말하면 知이며, 安行·利行·勉行의 三行이 仁이요, 이 智·仁·勇 各各 가까운 三近은 勇에 짝지워진다.

또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사람은 疑惑하지 아니하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아니하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셨고,

子 曰智者는 不惑하고 仁者는 不憂하고 勇者는 不懼니라 《論語》<子罕篇>

「君자의 道 셋에 내 能함이 없으니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은 疑惑하지 아니하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며,

子 曰君子道者는 三에 我無能焉호니 仁者는 不憂하고 智者는 不惑하고 勇者는 不懼니라 《論語》<憲問篇>

또 말씀하시기를 「德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말을 하지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어진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셨다.

子 曰有德者는 必有言이어니와 有言者 不必有德이니라 仁者는 必有勇이어니와 勇者는 不必有仁이니라 《論語》<憲問篇>

또 司馬牛가 君子됨을 묻자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君子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司馬牛가 다시 묻기를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君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허물이 없으니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두려워 하겠느냐」고 하셨다.

司馬牛問君子한대 子 曰君子는 不憂不懼니라 曰不憂不懼면 斯謂之君子矣乎인가 子 曰內省不어니 夫何愚何懼리오 《論語》<顏淵篇>

以上과 같이 「勇」은 知·仁과 함께 三達德의 하나이며, 「仁者는 必有勇」이고 「勇者는 不懼」한다는 것이다.

2. 不動心의 方法

勇氣를 기르는 바 養勇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養勇에 관해서는 일찍이 孟子의 學說

이 著名하다. 公孫丑와 孟子의 問答에서 公孫丑가 問기를 「先生님께서 齊나라의 卿相 자리에 오르시어 평소에 뜻하시던 王道를 행할 수 있게 되신다면 이로 말미암아 齊王이 王者가 되던 霸者가 되던 누구나 怪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先生님의 責任이 重大하여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시겠습니까?」고 하니, 孟子 대답하기를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40歲가 된 뒤로 動心하지 않았노라」고 하였다.

公孫丑 問曰 夫子加齊之卿相하사 得行道焉하시면 雖由此霸王이라도 不異矣리니 如此則動心이렇가 否乎잇가 孟子 曰否라 我는 四十에 不動心호라¹⁰⁾

이어서 問答하기를 「그렇다면 先生님께서 옛날 勇士인 孟賁보다 크게 뛰어나십니다. 孟子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告子도 나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느니라」고 하였다.

曰若是則夫子過孟賁이 遠矣로소이다. 曰是不難하니 告子도 先我不動心하니라.

孟賁은 옛날 勇氣있는 사람이므로 怯이 없어 不動心을 하고, 告子는 固執하는 사람이므로 變通이 없어 不動心을 하니 어찌 孟子가 理致를 밝히고 마음이 定하여 不動心하심과 같을 수 있으랴. 公孫丑가 알지 못하고 孟賁의 勇氣에 비유하니 孟子 말씀이 不動心만을 取한다면 告子의 偏僻된 固執도 족히 나보다 먼저하니 하필 孟賁의 勇氣에 비유하느냐고 하신 것이다. 孟賁과 告子의 不動心이 같지 아니하나 血氣의 부림이 됨은 같으므로 告子의 學問이 孟賁의 勇氣에서 나올 수 없으며 血氣로 因하여 不動心이 된 것임은 말할나위도 없다. 學問으로 因하여 不動心이 되는 것은 비록 聖賢이라도 年歲의 早晚이 없지 아니하니 孟子도 40에야 不動心이라 하시거늘 告子의 不動心은 學問을 因함이 아니고 血氣를 因함이라.¹¹⁾는 것이다. 不動心이 매우 어려운대 孟子께서 어렵지 않다고 하시고, 孟子와 孟賁·告子의 不動心이 각각 다르다고 하니 公孫丑가 疑問이 나서 問기를 「不動心の 方法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孟子께서 「있다」고 하셨다.

曰不動心이 有道乎잇가 曰有하니라.

10) 《孟子》〈公孫丑章句上〉

「加齊之卿相」加는 居의 뜻으로, 齊나라 卿相의 地位에 있다는 해석이 있다.(宇野精一, 《孟子》全釋漢文大系2, 參照)

「雖由此」由는 猶, 비록 그러하더라도, 즉 孟子가 賁權을 잡고 王道政治를 피터리도(上掲書 參照)

「霸王不異矣」霸王은 「霸를 하고 王을 하어도」의 뜻으로 當時의 常用語라고 한다.(上掲書 參照)

「不動心」일반적으로 重責을 맡아 이를 行하게 되면 두렵고 疑惑하여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聖賢은 마음이 定한 바가 있으니 어찌 일에 따라 동요하리요. 40歲로 말씀하신 것은 이때가 君子の 벼슬하는 나이이고 學이 完成되고 德이 굳어 마음이 더욱 定한 때이므로 동요되지 않는다.(儒教經典 疏譯叢書, 《孟子》「義解」參照)

11) 上掲書(義解 參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北宮黝의 養勇은 칼에 피부가 찢려도 흔들리지 않고 움츠러들지도 않고 눈을 찢려도 피하지 않아서, 남에게 욕을 당하면 마치 市場이나 朝廷에서 매를 맞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므로 막옷을 입은 천민으로 부터 모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萬乘의 군주에게도 모욕을 받지 않아, 萬乘의 군주를 찌르는 것 보기를 마치 匹夫를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여, 諸侯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를 험담하는 소리가 이르면 반드시 보복하였다.」고 하고,

北宮黝之養勇也 不膚撓하며 不目逃하여 思以一毫挫於人이어든 若撻之於市朝하여 不受於褐寬博하며 亦不受於萬乘之君하여 視刺萬乘之君하되 若刺褐夫하여 無嚴諸侯하여 惡聲之어든 必反之하니라¹²⁾

또 말씀하시기를 「孟施舍의 養勇은 적에게 이기지 못할 줄을 알아도 必勝의 信念으로 나아간다. 적을 헤아린 뒤에 전진하며 승리를 생각한 뒤에 교전한다면 이것은 적의 大軍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내 어찌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 다만 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孟施舍之所養勇也 曰視不勝호대 猶勝也로니 量敵而後進하며 慮勝而後會하면 是는 畏三軍者也니 舍豈能爲必勝哉리오. 能無懼而已矣라 하니라.¹³⁾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勇者 孟埴과 固執者 告子の 不動心이 같지 아니하나 血氣로 因하여 不動心이 된 것은 同一하다.

孟子의 不動心은 勇氣있는 者가 怯이 없어서 不動心하는 것과 다르며, 또 固執하는 者가 變通이 없어서 不動心하는 것과 달리 理致를 밝히고 마음이 定하여 곧 學問에 因한 不動心임을 알 수 있으며 또 이와 다른 北宮黝와 孟施舍의 養勇方法이 提示되고 있다.

Ⅲ. 浩然之氣와 知言

1. 曾子の 守約

孟施舍와 北宮黝 두 勇者를 비교하여 말하기를 「孟施舍의 勇氣는 曾子와 유사하고 北宮

12) 「北宮黝」 北宮은 姓이고, 黝는 名이다.

「不膚撓」 撓로 쓰는 사람이 있다.(宇野 精一, 前掲書) 撓는 屈의 뜻이다.

13) 「孟施舍」 孟은 姓이요, 舍는 名이다. 施는 虛字라 한다.

「三軍」 天下는 六軍, 諸侯의 大國 三軍, 一軍은 12,500명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大軍이라는 뜻.

勦의 勇氣는 子夏와 유사하니, 이 두 사람의 勇氣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가릴 수 없으나 孟施舍의 態度가 氣力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자신을 잘 단속하여 지켰다고 하겠다.»는 것이다.

孟施舍는 似曾子하고 北宮勦은 似子夏하니 夫二子之勇이 未知其孰賢이더니와 然而孟施舍는 守約也니라

두 사람의 勇氣를 曾子와 子夏의 學問에 비유하여 말한 것으로 北宮勦은 기어히 남을 이기려고 하니 子夏가 기어히 聖人을 배우고자 하는 것과 같고, 孟施舍는 자신을 지키기를 오로지 하니 曾子の 자기 몸에 돌이켜 참음과 같다. 그러나 北宮勦의 勇氣는 外的인 것에 있으니 應하기가 어렵고, 孟施舍의 勇氣는 內的으로 마음에 있으니 지키기 쉬우므로 지킴이 緊要하다¹⁴⁾고 한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曾子는 그 門人인 子襄에게 이르기를 자네는 勇氣를 좋아하는가? 내 일찍이 孔夫子로 부터 大勇에 관해서 들었으니, 스스로 反省해서 바르지 못하면 비록 賤한 사람일지라도 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스스로 反省해서 옳다면 비록 천만 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대적할 수 있다. 이것이 大勇이다.」고 하였다.

昔者에 曾子 謂子襄曰 子呼勇乎아 吾嘗聞大勇於夫子矣로니 自反而不縮이면 雖褐寬博이라도 吾不揣焉이리오 自反而縮이면 雖千萬人이라도 吾往矣라 하시니라¹⁵⁾

要컨대 孟施舍의 勇氣가 北宮勦의 勇氣보다 나으나 血氣에 因한 勇氣를 免하지 못하고 다만 안으로 힘을 씀이 밖으로 힘을 쓰는 것보다 緊要할 따름이니 어찌 曾子の 勇氣와 같을 수 있겠는가. 曾子の 勇氣는 孔子로 부터 배운 바이니 勝利를 爲主로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爲主로 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理致를 좇아 自身이 옳으면 實行하고 옳지 아니하면 實行하지 않는 것이 이르는 바 大勇¹⁶⁾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孟施舍의 지킴은 氣이니, 또 曾子の 지킴이 緊要함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孟施舍之守는 氣라 又不如曾子之守約也니라.

다시 말하면 血氣로는 孟施舍의 지킴이 緊要하여 北宮勦가 미치지 못할 바이고, 지킴으로 말하면 孟施舍는 한 몸의 氣인 勇일 따름이고 曾子는 자신의 몸에 돌이켜 理를 따라서 지키는 바가 緊要함이 더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不動心을 因하여 勇氣를 말하고 있으니 勇

14) 諺譯叢書《孟子》卷之三, 參照. 「約」은 要約, 要領, 要緊, 꼭 소용이 됨이라는 뜻.

15) 「子襄」 曾子の 弟子, 「夫子」 孔子, 「縮」은 直의 뜻(朱子), 「揣」은 恐懼之也.

16) 上揭書, 《諺解儒教經典 孟子》卷之三, 參照.

氣를 因하여 北宮黝와 孟施舍를 말한 것은 이에 비할 바가 못된다. 聖賢과 凡人的 差別이 지킴의 大小에 있으니 理를 좇으면 어떠한고 氣를 좇으면 어떠한 지를 살펴야 하겠다.

公孫丑가 물었다. 「감히 先生님의 不動心과 告子의 不動心에 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告子가 말하기를 남의 말 중에 理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求해서 穿鑿하지 말며, 또 내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氣에 도움을 求하여 怒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告子의 말 가운데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氣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可하거니와, 말이 理致에 맞지 않더라도 마음에 求하지 말라는 것은 不可하다. 사람은 意志가 氣를 統帥하는 것이다. 氣는 몸에 充滿해 있는 것으로 意志가 최고이고 氣는 그 다음이니, 뜻을 굳게 지니어 氣를 함부로 흩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고 한다.

曰敢問夫子之不動心과 與告子之不動心을 可得聞잇가 告子 曰不得於言이어든 勿求於心하며 不得於心이어든 勿求於氣는 可커니와 不得於言이어든 勿求於心은 不可하니 夫志는 氣之帥也요 氣는 體之充也니 夫志至焉이요 氣次焉이라 故로 曰持其志오도 無暴其氣라 하니라¹⁷⁾

意志는 將帥요 氣는 그 군사로 비유하니 不動心은 뜻에 있고 氣에 있지 않거늘, 告子가 固執만 하고 內外的 分殊를 알지 못하여 그 不動心이 氣에 있고 意志에 있지 아니하니 孟子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內外的 分辨이 學問의 緊要한 바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公孫丑가 물었다. 「이미 先生님께서 意志가 최고이고 氣가 그 다음이라 하셨고, 한 편으로는 意志를 굳게 지니고 그 氣를 함부로 흩어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에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意志가 한결같으면 氣를 움직이고 逆으로 氣가 한결같으면 意志를 움직이니, 이를테면 사람이 넘어지려는 순간에 몇 발 앞으로 뛰어 나아가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애당초 뛰어나갈 意志는 없었고 氣가 그렇게 한 것이지만 氣가 몸에 充滿하면 逆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意志와 氣는 서로 密接한 관계가 있으니 意志를 한결같이 하고 또 氣도 흩어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 하였다.

既曰志至焉이요 氣次焉이라 하시고 又曰持其志오도 無暴其氣者는 何也잇고 曰志壹則動氣하고 氣壹則動志也니 今夫齋者趨者 是氣也而反動其心이니라.¹⁸⁾

이와 같이 志와 氣가 互根의 관계가 있으니, 意志가 氣를 움직이는 것은 至極하고 氣가

17) 「不得於言, 勿求於心, 不得於心, 勿求於氣」趙岐는 「言」이나 「心」이 他人의 그것이라고 해석하여, 他人의 善言을 인지 못할 때는 그 몸의 氣에 求하여 怒해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한다.

朱子は 「言」은 他人의 말, 「心」은 自己의 마음으로 해석한다.

「勿求於氣」氣에 求하여 怒하지 말라고 해석한다.(『字 野精一, 前掲書, p.103 參照).

18) 「志至焉氣次焉」趙岐, 朱子는 모두 「至」는 至極한 것, 「次」는 그것에 버금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 宋의 蘇轍, 張栻, 明의 郝敬, 楊慎, 淸의 毛奇齡 등은 「至」를 이룬다고 해석하고, 「次」는 다음으로 이룬다(蘇, 張, 郝), 또는 次舍(宿의 뜻), 머문다(楊, 毛)고 해석한다.(상동)

意志를 움직이는 것은 10분에 1할 정도이니 不動心을因한 勇氣의 가치를 알 수 있다.

2. 集義所生者

浩然之氣는 孟子思想으로 가장 著名하게 알려져 있다. 孟子의 말씀을 分析 考察하여 浩然之氣의 本質과 그것을 기르는 방법을 밝혀보자.

公孫丑 問기를 「敢히 묻겠습니다. 先生님께서 어디에 장점이 계십니까」孟子 대답하시기를 「나는 남의 말을 알며 나의 浩然之氣를 잘 기르노라」고 하였으니

敢問夫子是 惡乎長이시니잇고 曰我는 知言하며 我는 善養吾의 浩然之氣하노라.

浩然之氣를 몸소 기르고 體得하여 孟子思想形成의 바탕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위의 問答은 孟子의 不動心이 무엇을 잘하여 그러한 것인가 하니, 말을 아는(知言) 때문에 義理에 밝아 疑惑이 없고 氣를 기르기 때문에 義理를 지키어 두려움이 없으므로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함이라, 그 氣가 본래 크나 기르는 까닭에 더욱 浩然하게 되고, 사람들은 모두 그 氣가 있건마는 잘 기르지 못하고 오직 孟子만이 잘 기르므로 「나의 氣」라 하였다고 하겠다.

이어서 公孫丑 問기를 「浩然之氣란 어떠한 것입니까」孟子 말씀하시기를 「말로 說明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敢問何謂浩然之氣잇고 曰難言也니라

孟子가 「知言」을 말씀하신대 公孫丑 「浩然之氣」를 물은 것은 율글에서 막 志・氣르 논함을 이어서 말했기 때문이고, 또 氣를 기르는 것은 內요 知言은 오히려 外인 것이다. 孟子는 말씀하기 어렵다고 하신 것은 그 마음에 홀로 터득하여 형상과 소리의 징험이 없으니 언어로는 형용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것이다.¹⁹⁾

孟子 말씀하시기를 「그 氣라는 것은 至極히 크고 至極히 剛하니 正直함으로써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廣大한 天地의 사이에 充滿하게 된다.」

其爲氣也 至大至剛하니 以直養而無害則塞于天地之間이니라.

19) 前掲, 《彖譯儒教叢書 孟子》, p.27.

20) 「至大至剛以直」朱子는 「以直」은 믿으로 붙여서 「直으로써 養……」으로 읽고, 趙岐는 「此至大至剛正直之氣也」라 하고, 程伊川은 《易經》<坤卦>에 보이는 直方大의 三德이 바로 이 大剛直에 해당된다고 하여 「至大至剛以(으로써)直」이라고 읽는다.

고 하여 사람이 天地의 氣를 받아서 태어났으니 本來 크고 剛하지만 곧게(直) 기르지 못하고
 고탈함이 있어 그 氣를 잃게 되는 것이니 곧게 기르고 고탈함이 없으면 어찌 天地와 다르리
 오. 그러므로 天地의 사이에 가득하게 차서 浩然이라 한 것이다.²¹⁾

또 말씀하시기를 「그 氣됨이 義와 道에 配合되니, 만약 이것이 없으면 주리어 시들어 버
 린다」.

其爲氣也 配義與道하니 無是면 餒也니라²²⁾

고 한다. 사람이 身體가 完全하여도 飲食을 먹지 못하면 주리게 되고 本來 剛대한 氣가 있
 으나 道와 義에 配合하지 못하면 주린다. 道는 天理의 自然이고 義는 人心의 合當한 것이
 다. 짝한다는 것은 서로 합하여 떠나지 못함이니 男女의 配匹과 같은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浩然之氣는 義를 많이 축적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義가 밖에서
 하루 아침에 갑자기 스며들어 되는 것은 아니다. 自身의 行實에 무엇인가 마음에 부족하게
 여기는 바가 있어도 그 氣는 굶주려 버린다. 그러므로 告子는 전혀 義를 알지 못한다고 말
 한 것이니, 이는 그가 內인 義를 外라고 하기 때문이다.」

是集義所生者라 非義襲而取之也니 行有不慊於心이면 則餒矣라 我故로 曰告子 未嘗知矣라 하노
 니 以其外之也일새니라.

浩然之氣라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일이 모두 義에 합하면 이것이 쌓여서 自然히 되는 것이
 고, 한두가지 義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 行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不足함이 있으면 어
 찌 浩然之氣가 되리요, 告子는 밖으로만 求하므로 「不得於言이어든 勿求於心하라」하니 이는
 義를 알지 못함이니 義는 안으로 마음에 있거늘 어찌 밖에서 求하고 말(言)에 얻으리요²³⁾라
 고 한 것이다.

以上에서 浩然之氣의 本質과 그 기르는 方法에 대해서도 孟子의 思想을 고찰하였다.

孟子가 不動心을 하는 것은 「知言」하므로 義理에 밝아 疑惑이 없고, 氣를 길렀기 때문에
 義理를 지키어 두려움이 없어서 不動心을 하였다. 氣는 본래 크나 기르기 때문에 더욱 浩
 然하고 사람마다 그 氣가 있지만 잘 기르지 못하고 孟子만이 잘 기르기 때문에 浩然之氣가
 되었다. 그 氣됨이 至大 至剛한 곧음으로써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天地의 사이에 充滿하
 고, 道와 義에 配合되므로 浩然之氣는 集義所生이며 義가 갑자기 엄습하여 취하여진 것이

21) 註 19)와 同.

22) 「配義與道」 「配」란 配合・配偶, 「義」와 「道」는 본래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나 區別해서 말하면 일에 處
 하여 마땅한 것이 義, 物自體에 存在하는 것이 道이다.

23) 前掲, 《諺譯儒教叢書 孟子》, p.29.

아니다.

浩然之氣를 기르는데 관하여 더욱 高次元의으로 仔細하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浩然之氣를 기르는데 努力할 뿐이고, 자신이 努力한 것에 대하여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며, 그렇지 않고 해서 그 目的을 잊지도 말며 빨리 효과를 올리려고 助長하여서도 안된다. 이를테면 宋나라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宋나라 사람 중에 벼삭이 자라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뽑아 놓은 자가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나는 매우 피곤하다 내가 벼삭이 잘 자라도록 도왔다고 하자 그 아들이 달려가서 보니 벼삭은 말라 있었다. 天下에 벼삭이 자라도록 억지로 助長하지 않는 자가 적으니라. 유익함이 없다고 하여 버려두는 사람은 苗를 심고서 김매지 않는 사람에 비유되고, 氣를 기르는데 있어서 억지로 助長하는 사람은 苗를 뽑아놓는 사람에 비유되니 아무런 도움이 없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이다」고 하셨다.

必有事焉而勿正하여 心勿忘하며 勿助長也하여 無若宋人然이어다. 宋人이 有閔其苗之不長而掘之者러니 茫茫然歸하여 謂其人曰 今日에 病矣로라, 予助苗長矣로라 하여늘 其子趨而往視之하니 描則稿矣러라 天下之不助長者寡矣니 以爲無益而舍之者는 不耘苗者也요 助之長者는 掘苗者也니 非徒無益이라, 而又害之니라.²⁴⁾

浩然之氣라 함은 道와 義에 순하여 점차적으로 自然히 되는 것이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 氣를 기르는 사람이 義를 쌓지 아니하고 잃어버리면 苗를 김매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으니 자라기가 어렵고, 마음을 억지로 制御하여 動하지 아니하고자 하면 苗를 뽑아서 빨리 자라나게 하는 사람과 같으니 자라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마르게 될 것이니 告子の 不動心이 이와 같다.²⁵⁾

學問과 事業이 어찌 期必할 수 없으나 孟子 期必하지 말라고 한 뜻은 일을 順理로 하면 自然히 그 目的을 달성할 것이지만 일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目的만 달성하고자 하면 오히려 해만 있을 것이니 농사짓는 사람이 때를 잃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할 뿐이요 어찌 豐年을 期必할 것인가, 孟子의 「勿正」은 目的을 두지 말라 함이 아니고 目的만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²⁶⁾

要約하면 浩然之氣는 集義所生者라고 할 것이요 그 기르는 高次元의 方法은 「必有事焉而勿正하여 心勿忘하며 勿助長하여」야 하는 것이 孟子 말씀의 要旨이다.

24) 「茫茫」은 精神없는 모양, 「勿正」은 期必치 말라는 뜻, 預期也(朱子), 「助長」無理하게 成長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좋은 것을 자라나게 도우는 의미로는 쓰지 않는다. 北宮鞫, 孟施舍 같은 사람이다.

25) 前掲, 諺解《孟子》, p.31.

26) 上 同.

2. 知 言

公孫丑와 孟子의 問答에서 孟子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 지를 물으니 孟子께서는 「나는 남의 말을 알며, 나의 浩然之氣를 잘 기르노라」고 하셨으니 「知言」과 「善養吾 浩然之氣」의 關係는 어떠한 것일까?

前述한 바와 같이 孟子의 不動心은 孟賁이나 北宮黝, 孟施舍, 告子 等과는 다르고 知言을 잘하여 義理에 밝아 疑惑이 없고 氣를 기르기 때문에 義理를 지키어 두려움이 없이 不動心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知言」과 「善養吾浩然之氣」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氣를 잘 기르면 自然히 知言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公孫丑가 「知言이란 무엇을 말합니까」라고 물은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偏向되어 公正하지 않은 말은 마음이 가리어져 있는 것을 알며, 放蕩한 말은 그 마음이 무엇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며, 도피하는 말은 그 窮한 바를 알 수 있으니, 言辭에 의해서 그 本心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같은 잘못된 마음이 爲政者의 마음에 생기면 단순히 言辭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政治에 弊害를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聖人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여도 내 말을 따르실 것이다.」라고 하셨다.

何謂知言이니잇고 曰被辭에 知其所蔽하며 淫辭에 知其所陷하며 邪辭에 知其所離하며 遁辭에 知其所窮이니 生於其心하여 害於其政하며 發於其政하여 害於其事하니 聖人復起사도 必從吾言矣 시리라.²⁷⁾

要컨데 孟子께서 「知言」을 말씀하시는데 대체로 말은 마음으로 부터 나오니 마음이 밝고 바르면 그 말도 밝고 被辭, 謠辭, 邪辭, 遁辭가 없을 것이며, 마음에 病이 들면 그 말도 이러한 네가지 類型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 政事에 害를 주게 될 것이다. 마음이 병들지 아니한 사람은 남의 병을 알 수 있으므로 孟子는 知言을 하시고 반면에 告子는 말에 얻지 못하면 마음에 求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에 병이 있어 知言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²⁸⁾

이와 關聯하여 《周易》〈繫辭下傳〉에 이르기를

將叛者는 其辭慙하고 中心疑者는 其辭枝하고 吉人之辭는 憂하고 躁人之辭는 多하고 誣善之人은 其辭游하고 失其守者 其辭屈하니²⁹⁾

라고 하였다..爻辭의 表現은 各爻의 心情에 따라서 變化한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말이 그

27) 「諛」陰險함. 「謠」은 放蕩함, 「邪」邪曲함, 「遁」逃避함, 「離」마음이 道理에 벗어나는 것.

28) 前掲, 諺譯《孟子》, p.33.

29) 《周易傳大全》庚辰新刊 內閣藏板 및 同 諺解 參照.

「枝」나뭇가지처럼 나누어지는 것을 뜻함. 「游」浮游 亞山 先生講論《周易講義》pp.234~235.

心情에 의해서 變化하는 것과 같다. 곧 「배반하려는 者는 마음에 민망한 바가 있음으로 그 말은 부끄러워한다.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하는 것이다.」 吉人(홀륭한 사람, 德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고, 출세에 조급한 사람은 말이 많고, 善人을 참소하려는 者는 없는 것을 있는 것 처럼 할려고 하므로 그 말이 浮游하고, 지조를 잃은 者는 自信이 없기 때문에 말이 오무라든다.

易의 各爻는 여러 立場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겨(擬) 있다. 따라서 爻辭의 말은 위의 慙·枝·憂·多·游·屈의 여섯과 같이 屈折된 表現을 取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屈折된 말로서 거슬러 그 心情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곧 말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곧 배반하려고 하고 있다. 言語가 分裂하고 있는 者는 마음속으로 疑心하고 있는 것과 같다. 上述한 孟子의 「被辭는 그 가리어져 있는 것을 알고, 謠辭는 그 무엇에 빠진 바를 안다」고 하는 것과 유사한 이야기이다.

다시 《孟子》에서 說辭, 善辭 등의 말들을 더 考察해 보면 公孫丑와 孟子가 對話하기를 「孔子의 門下에 宰我·子貢은 言辭에 뛰어나고, 冉牛·閔子·顔淵은 德行에 뛰어나고, 孔子는 이 兩者를 겸하고 계셨으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言辭는 能하지 못하노라고 하셨다. 그런데 先生은 德行은 勿論이지만 知言도 잘 한다고 하시면 이미 聖人입니다」고 하였다.

宰我子貢은 善爲說辭하고 冉牛閔子顔淵은 善言德行이러니 孔子兼之하사대 曰我於辭命則不能也
로하 하시니 然則夫子는 既聖矣乎신저³⁰⁾

여기에 들고 있는 다섯 사람은 孔子의 높은 弟子로써 各各 한가지 長點이 있으며, 孔子는 兼하시되 오히려 辭命은 不足하다고 하시거늘 孟子는 浩然之氣를 잘 기르시고 또 知言을 하시니 어찌 聖人이 아니겠는가 한데 이는 公孫丑가 孟子를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孔子도 알지 못함이니 氣를 기르지 못하면 어찌 知言할 수 있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氣를 어찌 기를 수 있겠는가. 孟子께서 兼하신 것도 아니다. 또 孔子께서 어찌 辭命을 能치 못하시겠는가. 다만 學者에게 根本을 힘쓰라고 하신 것이니 根本을 힘쓰면 辭命은 어려운 바가 아니니 비유하건대 氣를 잘 기르면 自然히 知言하게 된다는 것이다.³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公孫丑가 孟子께 「先生님은 이미 聖人입니다.」(夫子는 既聖矣乎신저)라고 하니 孟子께서 대답하시기를 「아! 그 무슨 말이냐? 옛적에 子貢이 孔子께 물기를 先生님은 이미 聖人입니다 고 하자, 孔子께서 聖人은 내 능하지 못하거니와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노라 하시니, 子貢이 말하기를 배우기를 싫어

30) 「說辭」 言辭, 言語와 같음. 「辭命」 言辭, 「命」은 告의 뜻.

31) 前掲註, 『《孟子》』, p.34.

하지 앎은 智요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앎은 仁이니, 仁하고 또 智하시니 先生님께서 이미 聖인이십니다 하고였다. 저 聖인은 孔子님께서도 스스로 自處하지 아니하셨는데 이 내가 聖인이라니 무슨 말인가?」라고 하였다.

曰惡라 是何言也오 昔者에 子貢問於孔子曰 夫子는 聖矣乎신저 孔子曰聖則吾不能이어니와 我는 學不厭而敎不倦也로라 子貢曰學不厭은 智也요 敎不倦은 仁也니 仁且智하시니 夫子는 既聖矣신저하니 夫聖은 孔子도 不居하시니 是何言也오.³²⁾

孔子는 聖인이시되 聖인으로 自處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마음 속으로 眞實로 그리하신 것이니, 聖인의 일은 實行하시고 聖인이라고 이르는데는 있지 아니함이라, 孟子의 뜻이 또한 그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公孫丑 묻기를 「옛적에 가만히 듣자하니, 子夏·子游·子張은 다 聖인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었고, 冉牛·閔子·顔淵은 전체를 갖추고 있었으나 微小하다고 합니다. 감히 선생님께서 自任하는 바는 어디 입니까?」라고 하였다.

昔者에 竊聞之하니 子夏 子游 子張은 皆有聖人之一體하고 冉牛 閔子 顔淵은 則具體而微라 하니 敢問所安하노이다.³³⁾

孟子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직 이를 그대로 두자」고 하셨다.

曰姑舍是하라.³⁴⁾

要컨대 孟子 말씀이 孔子도 聖人을 自處하지 아니 하신데 하물며 내 어찌 聖人을 當하리오 하시니, 聖인의 한 體를 두었거나 體는 갖추었으되 작다고 한데에서 어디에 자임하시지를 물은 바 대답하시기를 아직 그대로 두자고 하시니, 말하자면 孟子는 本來 聖人을 自處하지 아니하셨으나 子游·子夏·子張의 偏僻됨과, 冉牛·閔子·顔淵의 微小함도 또한 自處하고자 아니함이라 하겠다.

또 公孫丑가 묻기를 「伯夷와 伊尹은 어떻습니까?」 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道는 서로 같지 앎으니, 섬길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아니하며, 부릴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아니하여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어지러워지면 물러감은 伯夷였고, 어느 분을

32) 「惡」(오) 놀라는 소리, 아니! 아아! 「學不厭」 배움에 실증을 내지 앎음. 배움은 智에 속한다. 「敎不倦」 가르치는데 권태를 느끼지 앎음. 남을 가르치는 것은 仁에 속한다.

33) 「一體」身體의 一部分, 孔子의 學問全體를 身體에 비유하였다.

「具體而微」身體의 四肢는 구비하고 있으나 規模가 작다.

「安」스스로 認定하는 것.

34) 前揭 諺譯《孟子》pp.36~37.

섬긴들 내 군주가 아니며, 어느 사람을 부린들 내 백성이 아니겠는가 하여,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혼란해도 나아가 벼슬하는 사람은 伊尹이었다. 그러나 孔子는 벼슬 할 만하면 벼슬 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고, 오래 머무를 만하면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날만 하면 빨리 떠나는 態度를 취하신다. 이 三人은 모두 옛 聖人이다. 나는 어느 하나도 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나의 원하는 바는 孔子님을 배우는 것이다」고 하셨다.

曰伯夷 伊尹은 何如하니잇고 曰不同道하니 非其君不事하며 非其民不使하여 治則進하고 亂則退는 伯夷也요 何事非君이며 何事非民이리오 하여 活亦進하며 亂亦進은 伊尹也요 可以仕則仕하며 可以止則止하며 可以久則久하며 可以速則速은 孔子也시니 皆古聖人也라 吾未能有行焉이어나와 乃所願則學孔子也로라.³⁵⁾

말하자면 公孫丑가 묻기를 偏僻한 者와 微小한 者를 取하지 아니하면 伯夷와 伊尹은 어떠한지 물은데, 伯夷, 伊尹은 비록 道는 다르나 모두 極處에 達하였으므로 같이 聖人의 地位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몸을 지키는데만 極處에 達하고 伊尹은 天下를 救하는데에만 極處에 達하였으니 孔子와는 같지 아니하다. 孟子는 孔子에 미치지 못하는 못할지언정 願하는 바는 孔子를 배우고자 한다고 하였다.³⁶⁾

또 公孫丑 묻기를 「伯夷, 伊尹이 공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동등하십니까?」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生民이 있는 이래로 孔子님 같은 분은 계시지 않았단」는 것이다.

伯夷, 伊尹이 於孔子에 若是班乎잇가 曰否라 自有生民以來로 未有孔子也시니라.³⁷⁾

옛 聖人이라고 하신 까닭에 모두 같은지 의문을 가졌다. 聖인이 된 것은 같을지라도 크고 작음. 行하고 行하지 못함은 氣質과 時勢를 따라 다르니 하물며 孔子는 사람이 살고 부터 다시 있지 아니하는 聖人이라는 것이다.³⁸⁾

公孫丑 묻기를 「모두 옛 聖人이라 하니 무슨 共通點이 있습니까?」 孟子 말씀하시기를 「있으니, 四方百里의 땅을 얻어서 君主 노릇을 하면 모두 諸侯들에게 조회받고 천하를 소유하는 王業을 이룰 수 있거니와, 한가지 일이라도 不義를 行하고 한 사람이라도 죄없는 이를 죽이면 天下 얻는다고 하여도 모두 하시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共通點이다.」고 하였다.

曰然則有同與잇가 曰有하니 得百里之地而君之면 皆能以朝諸侯有天下어나와 行一不義하며 殺一

35) 「不同道」 누구와 不同道하느냐에 관하여 諸說이 있으나 「告子章句下」의 停于章에 伯夷, 伊尹, 柳下惠에 대해서 말하고 「三子者不同」이라 한 것을 미루어 여기서도 伯夷와 伊尹이 不同道하다고 본다.

36) 前掲 諺譯《孟子》p.38.

37) 「班」은 같은 모양, 등급을 이룬다는 뜻.
「生民」 사람.

38) 前掲 諺譯《孟子》p.39.

39) 「不辜」 罪 없는 者, 辜는 罪의 古字.

不舉而得天下는 皆不爲也리니 是則同하니라.⁴⁰⁾

여러 聖人の 規模와 氣像은 다르나 그 根本과 全體는 다름이 없다. 땅을 얻어 군주가 되면 제후의 조공을 받고 천하를 소유하는 盛德이 있지만 옳지 아니한 일을 하고 天下를 얻는 것은 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聖人の 마음이다.

또 묻기를 「伯夷와 伊尹이 孔子님과 같지 아니한 점은 무엇입니까?」 대답하시기를 「孔子의 門人 宰我・子貢・有若 이 세사람은 지혜가 족히 聖人을 알만하니, 이들이 가령 낮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첨하여 헛되이 칭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하였다.

曰敢問其所以異하노이다. 曰宰我 子貢 有若은 智足以知聖人이니 污不至阿其所好니라.⁴¹⁾

그런데 宰我が 孔子를 評하기를 「나로서 선생님을 관찰하건대 堯舜보다 훨씬 나으시다」고 하였고,

宰我 曰以予觀於夫子컨대 賢於堯舜이 遠矣로다.⁴²⁾

子貢은 말하기를 「禮를 보면 그 나라의 政治를 알 수 있고, 音樂을 들으면 그 君主의 德을 아 수 있으니, 이로써 百世의 뒤에서 百世의 王者의 德性을 評하여도 명확히 알 수 있으니, 生民이 있는 이래로 孔子님 같은 분은 계시지 않았다.」고 하였고,

子貢 曰見其禮而知其政하며 聞其樂而知其德이니 由百世之後하여 等百世之王컨대 莫之能違也니 自生民以來로 未有夫子也시니라.

有若은 말하기를 「대체로 同類라고는 하지만 큰 差異는 人間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달리는 짐승 중의 麒麟과 나는 새 중의 鳳凰과 丘陵 중의 太山과 고인물 중의 黃河와 黃海는 똑같은 것이며, 일반백성 중의 聖인도 이와 같은 것이다. 다만 孔子는 그 同類 중에서 빼어나며 여러 聖人 중에서 또한 빼어나서서 生民이 있는 이래로 孔子보다 더 盛德이 있는 분은 계시지 않다.」고 하였다.

有若 曰豈惟民哉리오 麒麟之於走獸와 鳳凰之於飛鳥와 太山之於丘垤과 河海之於行潦에 類也며 聖人之於民에 亦類也시니 出於其類하며 拔乎其萃나 自生民以來로 未有盛於孔子也시니라.⁴³⁾

40) 「汗」下의 뜻, 識見이 낮다.

41) 「以予」予는 宰我의 名이다.

42) 「麒麟」짐승 가운데 으뜸, 「鳳凰」나는 것 가운데 으뜸, 상상의 동물, 「河海」黃河와 黃海, 「行潦」길바닥에 고인물, 「萃」聚, 뛰어난 聖人의 모임, 많은 뛰어난 것 가운데 다시 뛰어난 것.

伯夷·伊尹·孔子 이 셋을 같은 聖人이라 하고 또 孔子는 生民이 있는 이래로 다시없는 聖人이라고 하니, 公孫丑가 그 차이점을 물었는데 孟子는 孔子의 門人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宰我는 堯舜과 孔子는 다름이 없되, 堯舜은 當世에 天下를 다스렸고 孔子는 後世에 道를 傳하시니 그 功이 더욱 높다고 하고, 子貢은 옛 일을 알지 못하여도 그 禮樂을 보고 들으면 百世라도 알 수 있으니 孔子는 生民이 있는 이래로 없었던 분이라고 하고 有若은 麒麟과 鳳凰이 神靈하여도 禽獸요 泰山이 높고 河海가 깊어도 또한 山과 물의 고임이니 그 類는 모두 같은지라, 聖人도 역시 사람으로대 특히 그 類에서 빼어났으므로 聖人이라 하며 사람 가운데 聖人도 어렵거니와 聖人 가운데 孔子같은 분은 더욱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浩然之氣로 시작하여 伯夷·伊尹·孔子를 論하다가 孔子의 讚美로서 글의 끝을 맺고 있다. 무릇 道義가 아니면 氣를 기르지 못하고, 氣를 기르지 못하면 不動心이 없고 知言이 어려우니, 聖賢은 大小와 深淺이 있으나 이 氣를 모두 기르는 바가 있는지라 伯夷·伊尹은 크게 길러서 極處에 達하였으므로 聖人이라 稱하였다. 그러나 偏僻된 까닭에 孔子와는 같지 아니하니 孟子는 비록 謙遜하지만 所願은 孔子를 배우고자 하였다.

IV. 結 論

以上에서 養勇으로 부터 나아가 浩然之氣에 관하여 《孟子》〈浩然章〉의 理論을 고찰하였다.

이 章은 有名한 浩然之氣와 知言과 孔子에 대한 讚美로 孟子의 理想과 養性의 方法을 論하였으므로 孟子思想을 理解하는데 重要的 章이다. 孟子는 孔子를 어는 누구보다도 尊敬하였으므로 《孟子》의 到處에서 孔子의 功績을 論하고 있고 또 孔子를 배울 것을 明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孟貢은 勇氣가 있어 怯이 없으므로 不動心이 되었고, 告子는 固執이 있어 變通이 없으므로 不動心이 되었으며, 北宮嚱와 孟施思의 勇氣 기르는 것을 보면 이들의 不動心의 根據는 各各 다르지만 모두 血氣之勇에 因한 聖賢의 不動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當然한 것이다. 그 本質에 관한 것은 本論에서 말하였거니와 浩然之氣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集義所生者」인 것이다.

道義가 아니면 氣를 기르지 못하고, 氣를 기르지 못하면 不動心이 없으니, 知言이 비록 어려우나 氣를 기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聖賢에도 大小와 淺深이 있으나 이는 모두 氣를 기르는 바에 있다.

血氣之勇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不動心은 있으나 일에 다다라서 發함에 반드시 모두 中節이 될 수 없다. 반면에 禮義之勇은 意志가 굳건하여 또한 어려움을 당하

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不動心이 있으며, 從容히 節度에 맞음이 있다. 血氣之勇은 肝膽에서 나오나 禮義之勇은 心에서 나오니 禮와 義로서 守制하면 血氣之勇을 스스로 가지고 있더라도 없앨 수 있고, 學問과 見聞으로서 擴充하면 禮義之勇이 없더라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要約하면 養勇은 明理養性에 있으므로 浩然之氣는 集義所生者라고 하겠다. 道義에 因하여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하여야 한다.